

미국식 GM의 '롯데상륙작전'

〈제너럴 매니저〉

시카고 컵스의 GM 모델로 파격 인사
한국의 단장과 미국의 GM은 큰 차이
젊은 단장의 소통·장악력 통할지 주목

영화 '머니볼'에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빌리 빈 단장(브래드 피트)이 베테랑 스카우트들에 둘러싸인 채 전력보강 회의를 하다 혁신적으로 포지션을 파괴하는 안을 제시한다.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인 스카우트들은 당황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 그러자 귀에 보청기를 낀 노년의 스카우트 한 명이 말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결정권은 단장에게 있다. 구단주와 하느님 외에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해. 우리는 의견만 제시할 뿐이야."

KBO리그에서 유일하게 미국 출신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이상구 전 롯데 자이언츠 단장에게 제리 로이스터 감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외국인 선수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던 시기다. 이전 단장은 "국내 감독들은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1군 엔트리 제외는 '바꿔 달라'는 표현이다. 그러나 '로 감독님'(실제로 이러한 호칭을 자주 사용했다)은 그런 것이 없다. 1군에 부상선수가 없으면 좀처럼 엔트리 변경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스터 감독은 KBO리그 사령탑이었지만 메이저리그 스타일로 팀을 운영했다. '단장이 팀을 짜면 내가 운영한다'로 요약된다. 분명히 대단한 성과를 보여줬지만 팀의 세대교체를 위한 밀그림에는 열중하지 않았다. 로이스터 감독 입장에서 그 역할은 단장이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 롯데가 시카고 컵스 스카우트 성민규 단장(37)을 선임했다. 그동안 한국 프로야구 분위기를 보면, 파격을 넘어 거의 '도박'에 가까운 인사이다. 여러 설명이 뒤따르지만 롯데 김종인 대표이사화 원하는 것은 미국식 '제너럴 매니저(GM)'가 모델이다.



롯데 신입 단장으로 시카고 컵스 스카우트 출신 성민규 단장(왼쪽)이 선임됐다. 미국식 제너럴 매니저(GM)를 위한 롯데 구단의 도박과도 같은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5일 사직 삼성전에 앞서 공필성 롯데 감독대행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성 단장. 사진 | 김원환 기자 won@donga.com

위 사례는 한국 단장과 미국 GM은 전혀 다른 직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점차 교집합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가 다른 만큼 문화에 큰 차이가 있다. 성 단장의 모델이라는 테오 엡스타인(시카고 컵스 CEO)과는 커리어가 전혀 다르다. 예일 대학교 출신 엡스타인은 20대에 GM이 됐다. 미국 사회에서 출생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면 올해 37세인 성 단장은 선수출신이기도 하다. 프런트는 물론 선수단과의 소통, 나아가 장악력에서 시작부터 사면초가가 될 수 있다. 롯데의 파격적인 실험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스포츠부 차장 rush@donga.com

“한국식 운영…목표는 성공적 리모델링”

성민규 롯데 단장의 각오

“김종인 대표와 두 번 면접 후 확정
차기감독? 선수가 좋아하는 분으로”

롯데 자이언츠 성민규 신입 단장(37)이 취임 첫날, 누구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롯데는 3일 오후 늦게 “신임 단장으로 성민규 전 시카고 컵스 환태평양 스카우트 수퍼바이저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원원 전 단장이 사퇴한지 46일만이었다. 이튿날인 4일 오전 계약서에 서명한 성 단장은 곧장 사직구장을 찾아 1군 선수단과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야구는 프런트나 코칭스태프가 아닌 선수가 하는 것”이라며 “선수들이 야구에 집중하도록 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곧장 롯데 2군이 있는 김해시 상동구장으로 향했다. 2군 선수들을 만나서도 같은 철학을 밝혔다.

다시 사직구장으로 돌아온 그는 경기 개시 전까지 잠깐의 틈을 이용해 취재진과 만났다. 성 단장은 “김종인 대표이사화 두 차례 인터뷰(면접) 끝에 단장직이 확정됐

다”고 입을 열었다. 김 대표와 면접 때 강조한 내용은 ‘한국식 운영’이었다. 그는 “최근 리빌딩이나 탱킹이 유행하지만 한국 사정과 맞지 않다. 인위적 리빌딩은 불가능하다”며 “내 목표는 리모델링이다.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내가 떠나더라도 시스템이 유지된다. 강팀들에게는 항상 이런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육성 위주의 시스템 구축을 선언한 만큼 1군 경기보다 2군 경기를 더 많이 챙기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그는 “사직구장보다 상동구장에 더 자주 가는 단장이 되고 싶다. 단장이 1군 전 경기를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야구에 전념하도록 돕는 게 내 목표다.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다짐했다.

성 단장이 바꿀 향후 롯데의 모습을 연상하기 위해서는 차기 감독의 밀그림이 우선이다. 성 단장은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신봉한다. 하지만 감독이 데이터에 박식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데이터 전문 코치를 영입하면 된다”며 “결국 ‘선수가 좋아하는 감독’이 최우선이다. 나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잠실-수원-인천경기 우천 순연

가을장마의 영향으로 4일 수도권에서 열릴 예정이던 3경기가 취소됐다. 잠실 키움 히어로즈-두산 베어스, 수원 LG 트윈스-KT 위즈, 인천 NC 다이노스-SK 와이번스전이 우천으로 순연됐다. 키움-두산, LG-KT전은

예비일인 16일(월)로 편성됐다. NC-SK전은 이동 동선을 고려해 18일에 치르기로 결정됐다. 추후 편성에 따라 KBO리그는 28일 패넌트레이스가 종료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다. 예정대로 정규시즌을 마치면 30일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으로 시작으로 포스트시즌에 돌입한다.

야구

3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애리조나 켈리, 빅리그 진입 첫째 10승

KBO리그 SK 와이번스에서 4시즌을 활약한 뒤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메릴 켈리(31·애리조나)가 빅리그 진입 첫째 10승을 따냈다. 4일(한국시간)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 홈경기에 선발등판해 7이닝 3안타 2볼넷 9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팀의 2-1 승리를 이끌고 10승(13패)째를 수확했다. 켈리는 KBO리그에서 통산 119경기에 등판해 48승32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한 뒤 2018시즌을 마치고 애리조나와 계약하며 빅리그에 진출했다. 이전까지 빅리그 경험이 전무했으나 SK에서 보여준 활약을 발판 삼아 올해부터 MLB에 입성, 성공적인 첫해를 보내고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로또플레이 19억 1등 당첨자 또 배출! 1등 조합 총 242회 배출!

로또 1등 당첨자들 비결은? 로또플레이! 가입문의 1666-6645



지난 869회 로또 1등 당첨자 이 씨는 "로또플레이 측에서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1등 분석 번호로 로또복권을 구매하였고, 토요일 저녁 8시경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번호 6개가 모두 일치, 로또 1등(16억 9천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이에 이 씨는 로또플레이 골드회원(3년제)으로 가입 후, 업체 측에서 보내준 분석 번호로 1년 동안 한주도 빠짐없이 꾸준히 구매했던 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전했다.

정 씨(47세/여성) 역시 골드회원으로 가입한지 5일만 로또 1등(12억 6천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며 큰 화제가 되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로또플레이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로또 1등 당첨자라고 밝힌 50대 여성이 40억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뿐만 아니라 2등과 3등이 동시에 당첨된 인증 사진과 후기를 전하며 '로또플레이'의 신뢰성과 분석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또플레이'는 요행을 넘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당첨 사례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또정보 업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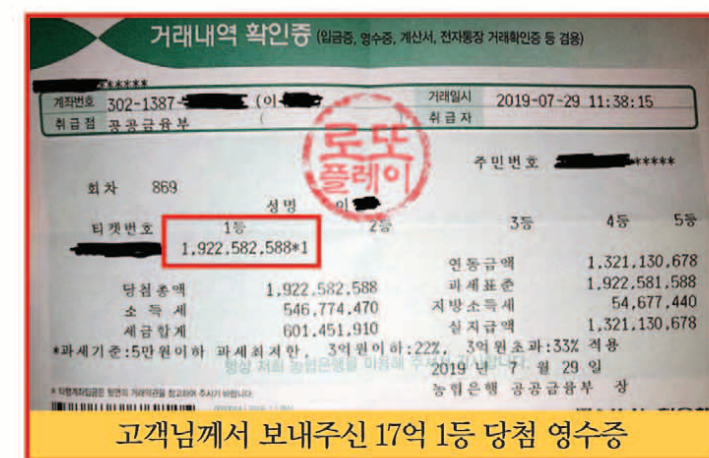
로또플레이는 한국 브랜드 고객 만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선호도 1위 외 총 15개 부문 대상 수상을 하였고, 실제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1등 242회, 2등 1,282회, 3등 42,445회 조합을 배출해내고 있다. 실제 1등 당첨 복권과 당첨금 지급 영수증까지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까지 더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1등, 2등, 3등 당첨 후기들은 로또플레이(lottoplay.c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로또플레이'는 골드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님들께 10년이 넘는 분석 노하우와 자체 개발한 1등 분석 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분석 번호를 매주 핸드폰 문자로 전송해 준다. (20게임/수량 변경 가능)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비용은 6개월 62,000원, 1년 88,000원, 3년 158,000원으로 대표번호 1666-6645 전화 한 통으로 가입이 간편하다. (카드 무이자 5개월 할부 가능)

홈페이지 : LOTTOPLAY.CO.KR

가입문의 : 1666-6645



로또플레이 가입문의 1666-6645